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10.30.(금)

민간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,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

- 한 총리, 도심복합사업 현장 방문 -

- "'**설계·시공자 통합공모**'가 **최초 추진**되는 지구인 만큼 **선도사례 되어야**"
- "도심복합사업, **실제 착공과 입주기간 단축**으로 이어져야 **국민들이 체감**"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30일(금), 8·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**여덟 번째 현장점검**으로, **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**(이하 '도심복합사업') 현장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-32 일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

※ (참석) 국토부 제1차관, 김우영 국회의원, LH 사장, 전문가, 주민대표 등

○ 이곳은 지난 9·7대책에 따라 **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함께 확보**할 수 있도록 도입된 **'설계·시공자 통합공모'가 최초로 적용**되는 지구이다.

□ **도심복합사업**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만으로는 **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**에서, **공공이 주도해**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**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** 사업이다.

○ 현재 **전국 47곳에서 약 8.5만호 공급**을 추진 중이며, 8·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**서울시내 11곳 1.8만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**하였다.

○ 이날 방문한 불광동 329-32지구*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2025년 11월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으며, 약 4.9만㎡ 부지에 1,7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.

* 불광동 329-32지구는 10월 23일 통합공모를 시작하였으며, 정부와 LH는 2027년 1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완료하고, 202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□ 한 총리는 불광동 329-32 지구와 주변 주거환경을 살펴본 후, **도심복합사업 활성화**를 위한 전문가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성과와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"**민간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**도 공공의 사업추진 역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**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**할 수 있다는 점에서 **도심복합사업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**"고 평가했다.

○ 이어 "**불광동 329-32 지구**가 설계·시공자 **통합공모를 처음 적용하는 사업지**인 만큼, **공공과 민간이 협력**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의 품질도 높이는 **선도사례가 되어야 한다**"고 강조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, "도심복합사업의 절차를 단축한 만큼 **실제 착공과 입주기간 단축**으로 이어져야 **국민들이** 주택공급 **성과를 체감**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○ 또한, 국토교통부와 LH는 물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**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**하고, 사업추진시 **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**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□ 끝으로 한 총리는 "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	책임자	팀 장 우종하 (02-2100-2295)
		담당자	사무관 손혜정 (02-2100-2296)
		담당자	전문위원 노영준 (02-2100-22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